

국내 건설경기전망



국내 건설, 수송부문 중심으로 건설투자 활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회복세 예상

국내 건설경기는 주택 2백만호 건설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주택부문의 건설물량은 줄어들지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금융실명제 충격에서 벗어난 부동산 경기의 회복 그리고 투자여건의 호전 등으로 전반적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대한건설협회가 분석 발표한 「'94년도 건설업·경기전망」에 따르면 건설공사 수주액은 '93년도보다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장기공사를 포함 43조 8천 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93년도 38조 8천89억원(잠정추계)보다 12.8%가 증가한 것이고, 85년도 불변가격으로는 7.2%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 ①경제성장률이 '93년도 4.6%에서 6.3%로
- ②설비투자가 -0.8%에서 5.8%로
- ③민간소비가 4.9%에서 5.2%로
- ④건설투자가 2.1%에서 5.4

%로

각각 늘어나고 정부예산이 경직성 경비의 진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전년대비 29.9%가 늘어난 6조7백72억원을 배정함으로써 도로·철도·지하철 등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가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의 경우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발주되고 공항·항만들의 시설 확충이 잇달아 전년대비 13.7% 늘어난 18조1천1백억원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돼 '94년도 건설경기를 주도할 것으

로 보인다.

민간부문의 증가율은 주택분양저조에 따른 미분양 물량의 급증과 이에따른 자금난 악화, 신규택지공급의 부진 등의 원인으로 '93년도보다 크게 둔화된 12.1% 증가한 25조7천4백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비주거용은 주택부문과 마찬가지로 상업용 건물의 임대·분양실적 저조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93년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공업용 투자의 활기가 민간부문 건설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